사진기자의 딴 짓

비오는 그날, 5·18묘지에서 만난 아이들

80년 5월 광주를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주사람 외에는 '그만 하라'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빨리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5월만 되면 가슴 미어지는 사람들, 한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 악몽의 그 날 일을 지금도 가슴에 묻은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답답한 것은 또 있습니다. 27년전 광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5월만 되면 광주 정신을 계승한다며 찾는 정치인들은 왜 저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과서에 남아있는 한 페이지의 역사가 그날의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래서인지, 비오는 날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이곳저곳 둘러본후 우산 대신 비닐을 둘러 쓴채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늘도 27년전 그날을 되새기는 듯 비오는 그날, 5·18묘지를 찾아준 우리의 아들들이 고맙기만 하네요. 우리의 미래들에게서 희망을 보는 듯 해서 말입니다. /나명주기자 mjna@

뉴스퀴즈 63·64회 정승아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3·64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정승아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정씨는 21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63·64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26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황경수 경사와 류현식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정승아·순천시 금곡동

2등 ▲강승수·광주시 북구 북동

뉴스퀴즈

65. 남북의 열차가 반세기만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습니다.

남북은 지난 17일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이날 오전 북측과 남측을 향한 열차를 동시에 운행했습니다.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입니다. 이날 남과 북에서 출발한 열차가 각각 도착한 역은 어디일까요?

① 개성역, 제진역 ② 개성역, 서울역
③ 부산역, 제진역 ④ 광주역, 대구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아들의 명 대답

부부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이혼하기 전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저를 만들때 저와 의논해서 했나요?"

■가슴 작은 마누라

가슴이 작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브레지어를 하는데 보고있던 남편이 그녀에게 한마디를 했다.

"가슴도 작은데 뭐하러 브레지어를 하냐?"

그러자 그녀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

"내가 너 팬티 입는거 보고 뭐라고 했냐!"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성적 올리기!

채소가게 자식은- 쑥쑥 올린다.
점쟁이 자식은- 점점 올린다.
한의사 자식은- 한방에 올린다.
성형외과 의사 자식은- 몰라보게 올린다.
자동차 외판원 자식은- 차차 올린다.
부동산 중개인 자식은- 불붙기 전에 올린다.
백화점 사장 자식은- 파격적으로 올린다.

■훌륭한 장모님?

아내가 말했다. "엄마 충고를 들었어야 했어! 당신하고 결혼 하지 않았어야 했어!"

남편 "장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 했단 말이지?"

아내 "그럼 아주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어!"

남편 "장모님이 그토록 훌륭하신 걸 처음부터 미처 몰랐네~"

■우동과 자장면의 대화

냉면 : 자네 요새 무슨 일이 있나?

우동 : 아닐세.

냉면 : 참 이번에 득남했다고 했나?

우동 : 응, 그렇다네.

냉면 : 자넨 복도 많아. 검은 생머리의 절세미인인 자장면양과 결혼하더니 이번에 아들까지 낳았군.

우동 : 흠, 그런 소리 말게.

냉면 : 뭐가 아닌가. 분명히 아들도 오동통한 면발에 긴 생머리 미남일 텐데….

우동 : 그게 말이야, 아내 자장면이 이번에 라면을 낳았다네.

냉면 : 헉! 어떻게 그런 일이…. 우동 자네와 자장면 제수씨 모두 생머리인데 꼬들꼬들한 라면이 태어나다니.

우동 : 나도 그럴 줄 몰랐다네. 그런데 내 아내 자장면이 원래는 짜파게티 였다는구만.

■듣기에 따라서는

간호사 : 바지 벗으세요.
은행 여직원 :(저금)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때밀이 : 돌아누우세요.
엘리베이터 걸 : 빨리 올라타세요.
골프장 캐디 : (골프채) 잘 꽂아 넣으세요.
간판집 직원 : 제가 잘 박아 드릴게요.
보험 외판원 :자꾸 넣었다 뺐다하지 마세요.
교사 : 참 잘했어요. 또 해보세요.
파출부 아줌마 : 더 빨 거 없어요.
보석 가게 주인 : 한번 끼워 보세요.
정화조 공사 :뚫어! 뚫어!
칵테일 카페 주인 :(칵테일) 흔들어 드릴게요.
도서관 주인 : (책 보고) 잘 끼워 넣어 주세요.
고스톱 도박꾼 : 흔들었다, 쌌다!
주차 직원 :(차) 넣으소, 빨리 빼소.
군대 상관 : (원산폭격) 빨리 박아라!
농구 감독 : 똑바로 넣어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음 4월 6일 丙辰)

子 36년생 귀한사람이 목마르게 찾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48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60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72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84년생 믿었던 협조자가 도움은 주지만 기약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32

丑 37년생 내 것 주고 욕먹는 수도 있으니 남모르게 배려하라. 49년생 불편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에 신중해야 하리라. 61년생 배우자의 불편사가 예상되니 잘 보살펴야 하리라. 73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리라. 85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18, 30

寅 38년생 가정에 대고가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펴보라. 50년생 가까운 사람간의 큰 싸움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 免하라. 62년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74년생 겉으로 보기는 침체되나 실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25

卯 39년생 新舊文書를 잘 살펴보라 괴로움이 발생할라. 51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옳은 판단이 되리라. 63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따른다. 75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나 좋은 쪽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13, 43

辰 40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 52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64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잘 들어 보라. 76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大苦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3, 39

巳 41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 53년생 엉뚱하게 큰일을 벌리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 65년생 호사다마 잘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77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리니 너무 걱정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0, 27

午 42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 54년생 발전은 약속되었고 시작만 남았다. 66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78년생 실패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착실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행운의 숫자 : 19, 42

未 43년생 친구끼리 다투니 쌍방이 손실이다. 55년생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67년생 세치의 혀가 잘못하여 법원까지 가리니 신중하게 보내라. 79년생 직장과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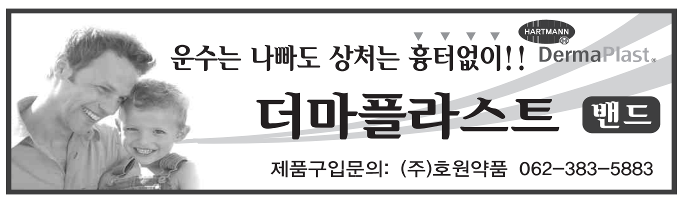
申 44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 56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68년생 상황 따라 길흉이 바뀌나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80년생 불만족스런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행운의 숫자 : 15, 41

酉 45년생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57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69년생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된다. 81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문단속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0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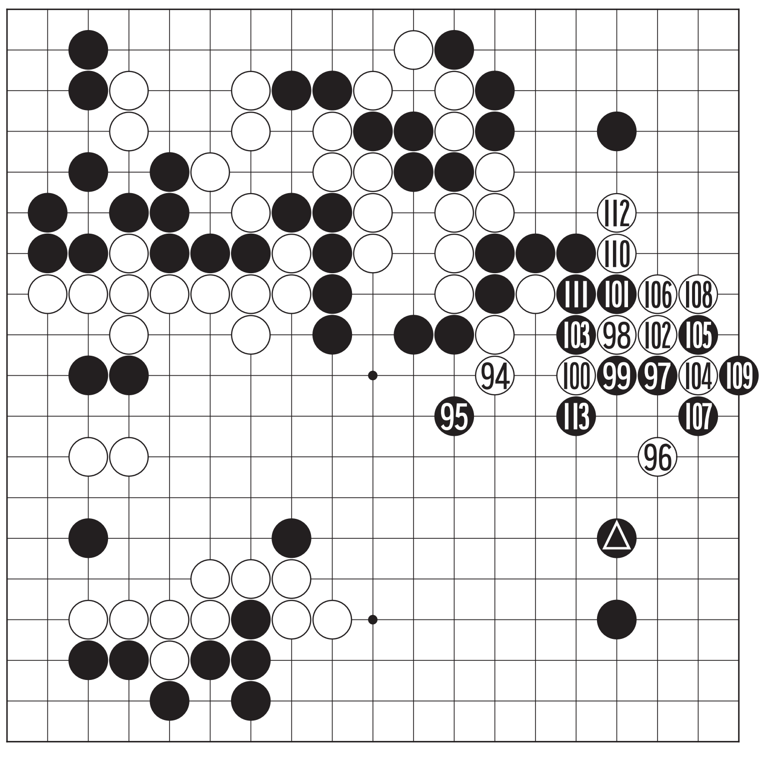
戌 46년생 남의 입에 놀아난다. 58년생 밖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펴보라. 70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좋은 인연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2, 43

亥 47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59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도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추진하라. 7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2, 3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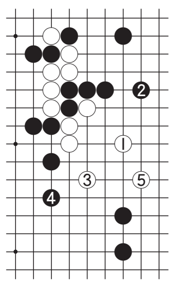
제16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초강수 연발

7보(94~113)

白 김광식 5단 ((주) 송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참고도〉

김영수 5단이 흑 ▲로 지킨 장면이다. 이 수로는 우변 99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상변전투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은 이상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쳐들어 오라는 듯이 가드를 내리고 있다.

이를 본 김광식 5단도 즉각 94로 늘어 교두보를 확보하고 96으로 바짝 쳐들어 간다. 그러나 백 96은 흑의 의도에 말려든 의미가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이 무난했으며 흑 2에는 3, 5 정도로 분란의 여지없이 쉽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었다.

김영수 5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97로 협공해 오자 또다시 국면은 격랑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흑 101이 강력한 차단의 의지를 보여준 강수였다. 이 수로는 102에 밀고 113으로 젖혀 우변을 잡는 것이 보통이나 김영수 5단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체를 노리고 있다. 113이 또 초강수인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박영훈, 물가정보배서 첫승

박영훈 9단이 2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물가정보배 D조 본선리그에서 루이 나이웨이 9단을 254수 끝에 백 4집 반으로 제압했다.

박 9단은 2연패 끝에 1승을 올렸지만 자력으로는 결선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열린 A조 대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강동윤 5단을 193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결선에 진출했다.

B조에서는 홍성지 5단이 결선에 선착한 가운데 이창호 9단과 조훈현 9단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속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09>

Please measure my shoe size

저의 신발 사이즈를 좀 재주십시오

A:Please measure my shoe size.
B:Yes, maam. Um, your size is 185.
A:Thank you. Then can you show me some sandals in 185?
B:Just a moment, please. Here, please try these on.

A:저의 신발 싸이즈를 좀 재주십시오.
B:예, 아가씨 당신의 싸이즈는 185입니다.
A:감사합니다. 그럼, 제게 185 샌달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B: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신어보십시오.

try it on ~ : 한번 ~신어보다
measure : (크기를) 재다
응용표현
(1) 이 신발은 오래 갑니다 : These shoes last a long time.
(2) 볼이 넓은 드레스 슈즈 있나요?
: Do you have broad-toe dress shoe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09>

使(つか)いにくいですね

사용하기 힘들군요

A:この リモコンはボタンが多(おお)過(す)ぎて、何が何だかわかりませんね。
B:そうですね。機能(きのう)が多(おお)いのは便利(べんり)そうですか、**使(つか)いにくいですね**。
A:家電製品(かでんせいひん)は、簡單(かんたん)で 手軽(てがる)じゃないと …
B:シンプル イズ ベスト ですね。

A:이 리모컨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B:그렇군요. 기능이 많은 것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만, **사용하기 힘들군요.**
A:가전제품은 간단하고 용이하지 않으면 …
B:simple is best 군요.

何(なに)が何(なん)だか : 뭐가 뭔지
機能(きのう) : 기능
使(つか)いにくい : 쓰기 불편하다
手軽(てがる) : 손쉬운 모양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00>

你最近很忙吧

당신 요즘 많이 바쁘시죠?

A:你最近很忙吧?
Nǐ zuì jìn hěn máng ba?
니 쭈에이찐 흐언 망 바?
B:对，每天早上6点起床，
Duì, měitiān zǎoshàng liùdiǎn qǐ chuáng,
뚜에이, 메이티엔 자오쌍 리오우디엔 치츄앙,
晚上12点以后睡觉。
wǎnshàng shí'èr diǎn yǐhòu shuìjiào。
완쌍 스얼 디엔 이허우 수에이찌아오.
A:这么忙，明天一起去吃饭，放松一下。
Zhème máng, míngtiān yìqǐ qù chī fàn, fàngsōng yíxià。
쩌머 망, 밍티엔 이치 취 츠 판, 팡쑹 이씨아.
B:再说吧。
Zài shuōba。
짜이 슈워 바.

A: 너 요즘 많이 바쁘지?
B: 응,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12시 이후에 잔자.
A: 그렇게 바빠, 내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스트레스도 좀 풀고.
B: 다시 이야기 하자.

放松一下 [fàngsōng yíxià] 긴장된 마음을 풀다
再说吧 [zàishuō] 다시 이야기 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26>

鏡中美人 (경중미인)

거울 경, 가운데 중, 아름다울 미, 사람 인

경중미인(鏡中美人)은 '거울 속 미인' 또는 '거울에 비친 미인'이라는 뜻으로 거울 속의 미인처럼 우아하고 단정하다는 뜻으로 수도 서울 주변에서 양반(兩班)문화를 영위했던 경기도(京畿道)인의 세련됨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림의 떡(화중지병·畵中之餠)'처럼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 말은 정도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사람들의 특성을 평가한 말로 택리지(擇里志)에 실려 있다.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윤행임은 이 말을 풀이하여 "서울은 중앙 집권지이고 서울 사람은 사교술에 능하다. 그러나 속마음을 주지 않아 거울에 비치는 미인처럼 바라볼 수만 있지 접촉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사람을 '냉정하다'라던가, '깍쟁이'라고도 평하게 되었다.

최근의 북한에서는 '경중미인'을 가리켜 "오랫동안 양반토호의 세습에 젖어 화려하게 차리고 다니면서 인사, 도덕도 밝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겉발림만 해 성실(誠實)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야유"라고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